

# “각국 여행객 심터이자 광주 문화·역사 ‘안내소’죠”

광주시 서구 쌍촌동 960-6, 2층짜리 벽돌주택이 즐비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알록달록 페인트로 꾸며진 대문을 만날 수 있다. 작은 인형이 걸린 풋말에는 ‘페드로 하우스’(Pedro House)란 손글씨가 방문객을 반겨준다. 빨간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새롭게 들어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무등산을 그린 벽화가 나타난다. 대문 안에 걸린 벽화에 눈길을 빼앗긴 이를 반갑게 맞아준 것은 페드로 하우스 주인장 김현석(37)씨다. 살짝 비틀어 쓴 모자와 둥근 안경테, 멋스럽게 기른 수염의 주인장은 서글서글한 미소로 인사를 건넨다.

그를 만난 건 외국인전용 게스트 하우스 페드로 하우스에서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곳은 광주를 잘 모르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여행은 물론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를 찾는 외국인 ‘여행 고수들’은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

“‘여행자의 필수품’으로 불리는 론리플래닛 한국어판을 새롭게 준비하는 작가가 2월 말에 저희 숙소를 다녀갔어요. 기존 책자는 페드로 하우스가 나오기 전이라 소개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을 소개하는 론리플래닛 작가가 광주 페드로 하우스에서 머물며 저와 함께 광주를 둘러보고, 여행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점, 추천하는 지역을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페드로 하우스에는 지난 2014년 한해에만 2000여 명이 다녀갔다. 독일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까지 전 세계에서 방문객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6개의 방에서 14명까지 머물 수 있는 페드로 하우스에는 1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7명, 10명 이상이 머무는 날도 다수다. 그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알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이

## 외국인 전용 게스트 하우스 ‘페드로 하우스’ 주인장 김현석씨



광주시 서구 쌍촌동 페드로 하우스 빨간 대문을 지나가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무등산을 그린 벽화가 나타난다. 벽화는 페드로 하우스를 찾는 손님이 주인장의 친절과 환대에 고마워 선물로 그려준 것이다. 김현석 씨는 이를 페드로 하우스의 보물이라고 소개했다.

### 지난해 2000여명 다녀가

### 론리플래닛 작가도 방문

### 임양아 부모 찾아 주기도

### 관광객 입장 정보 부족해

### 불편한 점 1순위는 ‘지도’

꾸준히 찾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18이란 역사와 김지숙제 등이 방문객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국제행사 같은 커다란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가 가진 모습 자체에 흥미를 가진 이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1순위로 ‘지도’를 꼽았다.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된 지도가 있지만 주요 거점 등을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지, 또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도가 없다는 것이다. 위치와 길, 관광지 및 맛집을 소개할 뿐 정작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부족하다는 걸음을 느낀다는 것.

페드로 하우스 ‘사장’, ‘대표’라는 직함 대신

‘주인장’을 고집하는 김현석 씨. 그는 자신이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가려운 부분을 잘 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인도 등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자들이 틀어 박힌 관광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89년부터 자신이 살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택을 2013년 외국인여행자전용 게스트 하우스로 꾸민 것도 자신의 아이디어다. 게스트 하우스 이름도 고민 끝에 자신의 세례명을 딴 페드로 하우스로 지었다.

외국인전용 게스트 하우스를 시작하기 전. 그는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행팁을 진행했다. 원어민 교사, 유학생 등 한국에서 머물며 문화 깊은 곳까지 알고 싶어하는 이들과 전국을 누볐다. 광주전남은 물론 부산, 경주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빠짐없이 다녀왔다. 그렇게 500여 차례 여행을 통해 전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를 만들게 됐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도 많다.

지난 2014년 10월 미국으로 입양된 한 여성이 페드로 하우스를 찾았다. 3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후 만나지 못한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그녀는 한국 경찰과 사립탐정까지 동원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씨를 소개받은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이를 전 구구절절한 사연을 털어냈다. 그렇게 기적이 시작됐다. 그는 SNS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수소문했다. 결국 입양된 보육원 이름과 사진, 흐릿한 기억 뿐인 부모를 이들 만에 기적적으로 찾았다.

“30여 년 전 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어머니, 지난 세월 속에 한글을 잊어버린 딸,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결코 잊어 버릴 수 없었던 혈육의 정을 통역하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틀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을 얻었죠.”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김희중 대주교 등 9일 로마 교황청 방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장·사진) 등 주교단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다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다. 김 대주교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미사를 집전한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오는 9~17일 주교단이 교황청(사도좌)을 정기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광주대교구 보좌주교인 옥현진 주교 등 현직 주교회의 회원 25명이 전원 참여한다.

주교단은 9일과 12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별도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국 천주교의 현황을 보고한다.

12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윤지중 바오로 등 124위’가 지난해 교황 방한 때 시복된 데 대한 감사 미사가 열린다. 이어 15일에는 로마 한인성당에서 한국인들이 참석하는 미사가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



## 김길수 승덕고 설립자 장학금 2200만원

승덕고등학교(교장 윤세웅) 설립자 김길수 정인장학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제20회 입학식에서 신입생 7명과 재학생 16명에게 장학금 2200여만원을 전달했다. 또 교육발전 유공 교직원 5명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과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 이사장은 “열심히 공부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달라”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999년 사재 3억원을 출연, 정인장학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17억원을 더 출연해 총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전남도청 전시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나명주)가 주최하는 ‘현장의 눈빛’ 2015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전남도청 전시가 5일 청사 1층 윤선도홀에서 개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흥건설, 광주시에 자전거 100대 기증



지역 중흥건설업체인 중흥건설이 5일 광주시에 유아·청소년용 자전거 100대(20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윤정현 광주시장과 정영주 중흥건설 사장이 참석한 기증식에서 정 시장은 시장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100대를 시에 전달했다. 정 시장은 “자전거

기증을 통해 시청 광장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첫 아너소사이어티(1억 기부)에 가입했으며 유·아·동 의류 및 용품 6500점(2억3000만원 상당)을 지역 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다. /임동훈기자exian@kwangju.co.kr

## 광주은행, 복지관 오곡밥 나눔 봉사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서 ‘오곡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임원과 지점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100여명은 5일, 광주 행복나루노인복지관과 목포 종합사회복지관, 여수 진달래마을요양원, 해남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어르신 1500여명에게 오곡밥과 나물, 부럼, 과일 등으로 차진 점심을 제공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광주은행은 특히, 사회적기업으로부터 4백만원 상당의



김을 구입해 이를 점심상에 함께 곁들이며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배식과 설거지, 식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홍행기자 redplane@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홍순구·김영자씨 장남 응교군 이광삼·박정희씨 장녀 연주양=7일(토) 낮 12시 40분 상무리즈컨벤션웨딩홀 2층 자스민홀.
- ▲임호경(전 화순군수)·이영남씨 장남 준열군 권기영·박혜숙씨 장녀 지혜양=8일(일) 오후 1시 광주 S타워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어연화씨 장남 황국일군 김연호·송연자씨 장녀 최정(광주일보 총무부)양=15일(일) 오후 1시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 향우회

▲재광 곡성 삼기 향우회(회장 김재정)=7일(토) 오후 6시 광주 북구 두암동 예술영양술살 062-266-5566.

### 중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지원장 이달우) 37회 정기총회=7일(토) 오전 11시 도지회 회의실 3층 062-225-5636.

### 알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학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면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 모집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회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 ▲푸른길통동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부음

▲고향현(전 조선대총장)씨 별세 홍식(전 삼성도탈 사장)·홍철(에코시안 부사장)·홍순·홍승·홍수·홍수·홍수·지영씨 부친

- 상=발인 6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 ▲이승만(송덕상사)씨 별세 경완(브라질 거주)·광완(사업)·정완(사업)·광자씨 부친상=발인 6일(금) 조선대병원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 ▲김남일씨 별세 광정·진·영희·영숙·영금씨 모친상=발인 6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 ▲이순례씨 별세 오종환·인환·필환·천

- 환·종환·인순씨 모친상=발인 7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진상순씨 별세 박정웅씨 모친상=발인 7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최춘실씨 별세 은희·봉훈(애플B유치원 원장)·규연·혜승·혜윤·홍준씨 부친상 김상훈·황은호·조만식·김재영·유홍씨 부부상=발인 7일(토) 광주그린장례식장 4층 062-250-4455.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b>101호 故조금남 님 (여/88세)</b> 子/儿媳: 윤석민/최영숙, 윤종만/백미영 女/婿: 윤대경/강기수, 윤해진/오순영 *발인: 3월 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최영훈 님 (남/64세)</b> 子/儿媳: 최한태, 최현중/조영미 女/婿: 최수관/모자수, 최은란/기영선 未亡人: 양호연 *발인: 3월 7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b>201호 故염선란 님 (여/76세)</b> 子/儿媳: 주대식/차영란, 주대호/최갑순, 주대영 女/婿: 주미애/정종철 夫君: 주철환	<b>401호 故신복임 님 (여/71세)</b> 子/儿媳: 김홍운/강진희, 김진호, 김진삼/박미영 女/婿: 김홍숙/기대봉 男君: 김홍삼
*발인: 3월 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발인: 3월 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